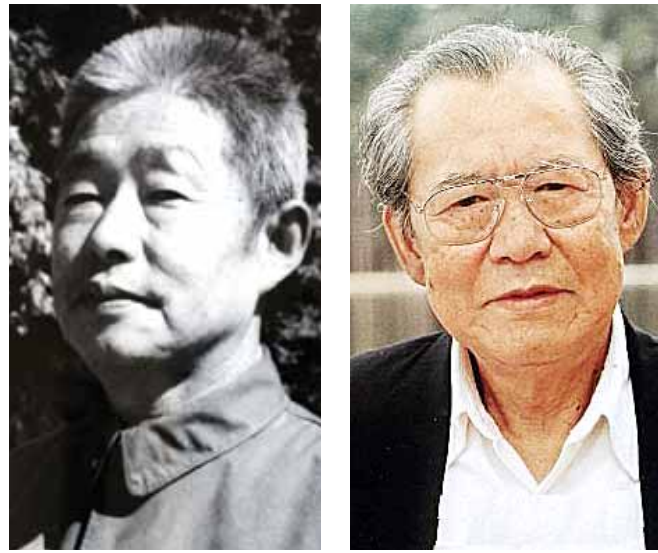


# 정율성·윤이상 음악 만나다

6월 16일 통영, 8월 광주서 합동 연주회

오늘 개막 통영국제음악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 연주



정율성

윤이상

정율성과 윤이상의 음악이 시대를 초월해 만난다. 광주가 낳은 정율성은 항일전쟁 때 중국공산당의 주력부대였던 팔로군이 부르던 중국인민해방군가를 작곡했다. 국내외 국외를 넘나드는 노래의 역동성은 항일(抗日)이라는 시대성이 낳은 결실로 손색이 없다. 그의 음악적 혼을 기리는 행사는 매년 중국과 광주를 오가며 펼쳐진다.

윤이상은 통영이 낳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악가로 오랫동안 경계인으로 살았다. 동베를린간첩단 사건에 휘말려 옥고를 치른 그는 이후 '광주여 영원히', '화영 속의 천사'와 같은 음악으로 인권 문제를 환기시켰다.

광주와 통영의 음악가 정율성과 윤이상의 음악이 양 도시에서 연주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끈다.

광주문화재단과 통영국제음악재단은 오는 6월 16일 통영에서 8월 말에는 광주에서 정율성과 윤이상의 작품을 공연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30일 통영에서 개막하는 2018 통영국제음악제 개막 공연에서는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가 울려 퍼진다. 오는 4월 8일까지 통영국제음악제에서 개최되는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의 주제는 '귀향'.

특히 이번 통영국제음악제 개막공연에서 윤이상의 '광주여 영원히'를 독일의 보훔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연주한다.

'광주여 영원히'는 1981년 윤이상이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해 만든 음악이다. 30일은 작곡가 윤이상의 유해가 49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날로, 뜻 깊은 개막공연에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막공연에 광주문화재단은 김윤기 대표이사, 김승일 '임을 위한 행진곡' 관현악곡 제작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통영 국제음악제와 교류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문의 062-670-7464.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빛고을시민문화관 월요콘서트

4월 2일 첫 무대 '팬타곤' 실내악의 밤

"매주 월요일은 콘서트와 함께 새롭게 시작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클래식, 재즈, 실용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콘서트가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빛고을시민문화관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곡을 선보이는 '월요콘서트'를 기획, 4월부터 11월까지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진행한다.



고은영

옥정선

첫 무대는 오는 4월 2일 오후 7시30분 '팬타곤'이 실내악의 밤으로 꾸민다. 연주자들은 세계 전통 이색악기 연주를 통해 남미의 선율을 전한다. '팬타곤'은 팬플룻, 오카리나, 이색악기 등 연주자들이 모여 결성했으며 조우상(팬플룻)을 중심으로 고은영(오카리나), 권혁찬(이색악기), 옥미연(기타), 옥정선(기타, 보컬), 김도연(기타) 등 6명의 연주자들로 구성됐다.

한편 월요콘서트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모두 20회 공연되며 상반기는 오는 6월 11일까지 계속된다. 공연장 객석의 30%를 문화 소외계층에게 제공되며, 관람객 전원에게 공연 후 기념품이 제공된다. 두 번째 공연은 오는 4월 9일 오후 7시 30분 '(사)강숙자오페라리인'의 '봄과 사랑의 시를 노래하다'를 선보일 계획이다. 입장료 전석 1만원(공연 아티스트 전 사전예약제). 문의 062-670-7943. /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 '임을 위한 행진곡' 5월 개봉

5·18 다룬 영화...38주년 맞춰 관객 만나



5·18민주화운동을 다룬 영화 '임을 위한 행진곡'이 38주기에 맞춰 5월 개봉한다.

(주)무당벌레필름과 (주)안오편터엔터테인먼트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제작된 영화가 오는 5월 관객을 만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는 1980년 5월 범대생 이철수의 의문사를 액자식 구성으로 그려 현재까지도 아픈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한 한 가정 이 서로를 보듬어 가는 과정을 통해 부모, 자식 세대뿐만 아니라 지역 간의 화합을 담아낸 작품이다. 김꽃비, 김부선, 이한위의 참여로 영화의 깊이를 더했고 전수현, 김재희, 김효명, 한다영 등이 출연한다.

개봉 확정과 함께 공개된 사진은 영화 속 평범한 시민들의 모습부터 1980년 5월 광주, 긴박했던 그날의 상황을 담았다. 과거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엄마와 상처를 알게 된 후, 이를 바로 잡으려 나서서 희수의 모습부터 악랄한 사복 경찰의 모습을 한 영찬, 자신의 신념을 관철해나가는 철수의 사연을 보여주며 공감을 자극한다.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 미디어아티스트 백남준과 이이남의 만남

KAIST비전관 개관 특별전

5월 18일까지 대전서



오는 5월18일까지 대전 KAIST비전관에서 열리는 '백남준·이이남 미디어 아트전'

세계적인 미디어 아티스트 백남준 작가와 광주의 이이남 작가가 특별한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 19일 문을 연 대전 KAIST비전관 개관 기념 특별전 '백남준·이이남 미디어아트 전 - 언리미티드 세미오시스(Unlimited Semiosis)'으로 오는 5월 18일까지 이어진다. 주제 '언리미티드 세미오시스'는 미술의 풍경을 보고 생각하며 색과 형태의 시각적 파동을 몸으로 지각하는 디지털예술에 대한 시각적 의미를 찾아보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백남준 작가의 작품으로는 지난 2001년 모니터와 스피커를 연결해 로봇 형태로 제작한 '찰리 채플린'이 전시됐다. 희극배우이자 영화감독인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통해 물질만능주의 시대, 인간성 회복이란 주제를 담고 있다.

이이남 작가는 첨단기술을 활용한 뉴미디어 아트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신작

인 '만화병풍'은 LA아트스에 출품돼 인기가 높고 '다시 태어나는 빛' '자개 꽃과 만물', '아사천에 매화꽃이 피었다', '모나리자 폐하', '돋보기 TV-캔버스 위의 별새' 등을 만날 수 있다. 또 이 작가가 제작한 백남준 아카이브 영상 '전자 포스트잇'도 눈길을 끈다.

서 자신만의 감성을 보여준다. 미술의 역사가 이룩해 놓은 상징적인 이미지가 그의 디지털 붓으로 재탄생하는 셈이다.

한편 이 작가는 5월 모스크바에서 개인전과 그룹전을 열 계획이며 상하이, 홍콩, 파리, 헤이그, 오스트리아 인스브루크, 스위스 취리히 등에서 열리는 전시에도 참여한다. 국내에서는 4월 개인전을 개최하며 창원비엔날레에도 참여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 문인화가 이미숙 개인전

4월 5일까지 유·스퀘어 금호갤러리

문인화가 이숙 이미숙 작가의 개인전이 오는 4월 5일까지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재단법인 방촌문화재단이 후원하는 이미숙 작가의 개인전은 지난 1월 인사동 한국미술관에서 열린 '2018년 신춘화달력 초대 개인전' 이후 네 번째다. 이번 전시는 문인화 작품이 달력과 만난 이색 기획이다. 대형·소형 달력과 탁상용 캘린더 등 달력 한 쪽 면에 시와 글씨, 그림을 배치한 작품들이다. 작가는 부엉이를 소재로 제작한 작품을 달력에 담은 13점을 포함해 꽃 등 자연을 모티브로 한 작품들을 선보인다.

이 작가는 "홍조와 길조의 역할을 하는 부엉이에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투영했다"며 "가족만을 위해 살아오신 아버지를 부엉이라는 객체에 표현, 딸이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내고 싶었다"고 자신의 작품을 소개했다.

방촌문화재단은 지난 1994년 설립 후작가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의 062-360-8436. /김미은기자 mekim@



## 플루티스트 은혜인·비올리스트 민선지 공연 오늘 금호아트홀



은혜인

민선지

플루티스트 은혜인과 비올리스트 민선지가 30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을 연다.

이 날 공연에서는 은 씨가 피아니스트 전자희와 함께 드비엔느의 '플루트 협주곡 제8번 g단조', 슈베르트의 '즉흥곡 내림 B장조 Op.142/3', 보짜의 '이미지' 등을 선보인다.

은 씨는 2015년 예원학교를 졸업하고 2016년 독일 데트몰트음대 Bachelor에 입학했다. Janos Balint와 동현정을 사

사했다. 민 씨는 미야스코브스키의 '첼로 소나타 2번 a단조 Op.81', 포레의 '시칠리아노 Op.78', '보르시즈(자장가)', 가르트크노스의 '비올라 스페이스' 중 '1번 다리 옆에서' 등을 무대에 올린다.

민 씨는 숙명여자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 데트몰트 음대를 졸업했다. 협연자로는 지해나씨가 출연한다. 전석 1만 원. 문의 010-4400-7114. /전은제기자 ej6621@kwangju.co.kr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국제보청기**

www.shinyangparkhotel.com

고객의 행복을 창조하는 곳

무동산의 자연이 아름다운  
도심속의 휴식공간  
아름다운 야경이 있는  
신양파크호텔

**신양파크호텔 맞춤 출장파티**

교회·성당 웨딩 출장파티, 가족모임, 기업체 등 각종 기념 출장파티를 고객이 원하는 장소와 금액에 신양파크호텔의 연회음식과 분위기를 그대로 옮겨 드립니다.

Shin Yang Park Hotel  
(주) 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Tel. 062-228-4711~2